



# 2024년 성탄 메시지

  
**Prado**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치하며



##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

친애하는 여러분께,

강생의 신비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가 되는 것, 이것이 «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1티모 1,1)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탄의 빛은 온갖 시련이 있는 삶의 여정에 함께하지만, «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9)라고 하신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이 희망의 말씀이, 매일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 5)라는 내용에 따라, 이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번 성탄절에 시작되는 희년 기간 동안 '희망의 길'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망과 모든 사람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로 부름 받습니까?

올해는 중동의 프라도 형제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의 말을 우리 것으로 삼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사목적 동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의심, 맹목적인 폭력의 참화를 겪고 있으며, 더 이상 시민과 무장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폭력으로 점철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자신과 확연히 구별되는 타자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에 그토록 거룩한 생명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 변질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모든 민족의 보편적 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적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괴당했습니다. 따라서 권능을 가진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하느님조차 부정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프라도 형제들이 이 시대, 특히 레바논에서 경험하고 있는 비극을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희망의 길로 인도되도록 내맡깁시다.

희망의 순례자로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지만,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을 기다리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목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걸어갑시다. 별의 인도를 받는 동방 박사의 온순함과 하느님 안에서만 쉴 수 있는 불안한 마음 속에 깊은 열망을 가지고 걸어 갑시다!

항상 정의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열망에서 비롯된 이 여정을 감히 감행한다면, 이 여정은 "하느님의 영" 또는 "하느님의 숨결"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는 «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1베드 3.15)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이 서간의 본문(3.8-18)을 보면, 우리는 축복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축복을 잃지 맙시다. 오늘도 이 소중한 유산에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주변에 널리 전파합시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모든 사람의 몫이라면 악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써 고통을 겪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라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죽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므로 그분께 우리의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희망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말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의 덕행입니다.

모든 대륙에서 우리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우리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지만 성탄의 전달자는 인류에게 복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희망은 구체적인 표징으로 나타나며, 이 표징이 비록 오늘날 불행을 막을 힘이 없더라도 우리 인류와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한 표징은 무엇보다도 악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고통받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들과 형제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상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또한 연민을 가진 사람들과 일상의 평범한 행동으로 연대를 보여주는 사람들, 재난 피해자와 함께 살기로 자처하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탄은 이러한 표징이 인간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와 연대하시는 분이 하느님 자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희망의 전달자이자 이 사랑의 표현인 인간의 표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희망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를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오늘과 내일의 여정을 해나가면서 2025년 성년의 희년과 앙트완느 슈브리에 탄생 200주년의 프라도 희년(2026년 4월 16일~2027년 4월 16일)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자 앙트완느 슈브리에 신부님과 함께 시작된 카리스마와 일치 안에서 살아갈 은총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며, 오늘날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달하도록 계속 은총을 주십니다.

올해 성탄절을 통해 강생하신 말씀에 대한 앎이 더욱 성장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욱 잘 살아가고, 그분께 더욱더 애착하며, 세상 구원을 위한 그분의 표징과 성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8일, 리옹



**아르만도 파스쿠알로토(국제총장),**

**뤽 라리르(제1평의원), 세르지오 브라가 도스 산토스 네토(제2평의원)**

**유세프 아사프(평의원 겸 중동프라도 회원).**



**프라도사제회 국제본부**

13, rue Père Chevrier - 69007 LYON - France

전화: (+33) 04 78 72 70 66 - [www.leprado.org](http://www.leprado.org)